

# 韓國民家에 있어서 안마당의 性格

부산대학교 조 성 기

## 1. 序

한국민가의 배치유형을 으레히 안마당을 중심으로 안채와 부속채가 단계적으로 口자형을 형성해가는 경향이 있다.

물론 社會的 建築에서도 그렇다.

그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민가는 중부지방의 厝口자형 민가이며, 상류주택에 속하는 口자형 뜰집은 더욱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안마당을 둘러싸는 배치유형을 꼭 의도적인 경향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안마당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주거공간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 2. 마당과 中庭의 해석

### ● 金奉烈 교수 —— 안마당의 정의

- 안마당은 안채에 딸린 마당(private yard)과 둘러싸여진, 안에 있는 마당(inner Court)이 복합된 명칭.
- 中庭은 inner Court의 개념만을 지칭하므로 西洋의 patio나 中國의 院子에 가까운 개념이다.

### ● 송용호 교수 —— 마당의 성격

- (1) 공간의 二重性(공간의 격리와 연결의 효능)
- (2) 공간의 余白性
- (3) 공간의 轉用性
- (4) 공간의 媒介性(과정적 공간의 기능)

● 中庭式 住宅의 形成要因(地中海연안의 도시주택)

- (1) 社會心理的 요인(외부로 부터의 프라이버시)
- (2) 경제적 요인 (고밀도의 주거지)
- (3) 기후적 요인 (온습도의 조절)
- (4) 종교적 요인 (오아시스의 연상)

○ 中庭式 주택은 각각 사회적, 경제적 배경이 다르지만, 지역적인 기후조건과 집단방어의 필요성은 직접적인 형성요인이었다.

○ 그러나 母型的인 것은 文明以前の 수렵·채집민족의 주거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中央에 空地(open space)를 두고 주위에 주거군을 둘러싸는 형태이었다.

### 3. 안마당의 경계부 구조

● 芦原에 의하면 건축적 공간은 적극적 공간(positive space)과 소극적 공간(negative space)으로 분류된다.

이를 □자형 민가에 적용시켜보면,

- ① 주거공간 → P·space, 마 당 → N·space
- ② 안 마 당 → P·space, 마 당 → N·space
- ③ 주거공간 → P·space, 안마당 → N·space

그러므로 안마당과 다른 마당과는 공간의 질적인 차이가 있다.

● 전통건축에서 내·외부공간의 경계구조는 자연과의 관계로 설명된다. 지역적으로 서로 다른 기후풍토와 문화에서 가옥의 내부공간은 자연과 접촉함에 있어서 독특한 구조를 만들어 왔다.

서양건축-석조, 벽돌조에 의해 자연과는 대립되는 구조.

한국건축-목조, 가구식 구조와 여러형태의 개구부가 발달되어 공간의 침투성이 인정된다.

● 공간의 침투현상-내부공간(P·space)과 외부공간(N·space) 사이에 일어나는 공간의 구조적, 시지각적 貫入程度. 이것은 自我와 非自我의 경계상태를 나타내는 透過性(permeability)과 非透過性이라는 개념으로 바꾸어 나타낼 수 있다. 自我境界는 心的領域을 둘러싸고 있는 膜이나 壁으로 설명된다.

- 口자형 民家는 안마당을 담장이 아니라 주거공간으로 둘러싸고 있는데, 두공간사이에는 가능하면 적극적인 투과성을 통해서 공간의 同質化가 바람직 하다.  
실제로 안마당과 주거부분의 경계는 공간의 침투성이나 투과성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청마루에 이르면 공간의 유동성으로 표현된다.  
그밖에 추녀, 쪽마루, 토방의 존재는 공간의 깊이감을 더하여 투과성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 4. 안마당의 규모

民家の 物理的인 공간이 밀도높은 삶의 感應裝置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범위의 공간적 스케일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공간적 거리는 특히 知覺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측면에서 몇몇 기준치를 찾아볼수 있다.

- Hall - 30ft<sup>2</sup>(9.14m) 이상의 거리이면 보통 목소리를 말하는 상세한 뜻의 낱안스나 얼굴의 상세한 표정, 움직임을 느낄수 없다.
- Maertens, Spreiregen - 개인의 표정을 인식할 수 있는 최대거리는 12~13.6m로 설정하였다.

中部地方의 ㅍ자집에서 보는 마당의 규모

- 안마당의 평균가로길이 - 9.1m
- 안마당의 평균세로길이 - 8.6m
- 안마당의 평균면적 - 79.7m<sup>2</sup>(24.1평)

경북 북부지방의 ㅍ자집에서 보는 마당의 규모

- 전면 2칸 마루일때 — 안마당의 평균가로길이 - 5.73m  
안마당의 평균세로길이 - 6.42m  
안마당의 평균면적 - 36.9m<sup>2</sup>(11.2평)
- 전면 3칸 마루일때 - 안마당의 평균가로길이 - 7.12m  
안마당의 평균세로길이 - 7.21m  
안마당의 평균면적 - 51.5m<sup>2</sup>(15.6평)

위와같은 수치는 민가의 대청마루에 앉은자세에서, 일상적인 음성으로 가족들과 대화가 가능하고, 가족구성원의 얼굴표정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인간적인 척도의 범위에 들어있음을 알수가 있다.

## 5. 안마당의 성격

주거공간은 안마당을 에워싸아갈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공간의 성격이 어떤 특정의 목적이나 내용을 정해두고 계획된 것이 아니므로 텅비워 있을 뿐이다.

마당의 이러한 성격을 老子の 道德經에 나오는 「無爲而無不爲」에서 텅비워 둔 이유를 찾아보자.

— 일단의 需要가 성립하면 生動하므로 「無」에서 「有」가 생기고 또한 아직 作爲는 없으나 이미 生成된 「有」(無爲)로 인하여 「有」가 생길수 있게 되어 萬가지 變化에 대응할 수 있으므로 「有는 無에서 나온다」(無不爲)이다.

다시 말해서 가정살림의 어떤 斷面들이 안마당에 채워지고 전개될때 비로서 안마당은 활기를 찾게된다. 그 삶의 단면들은 어떤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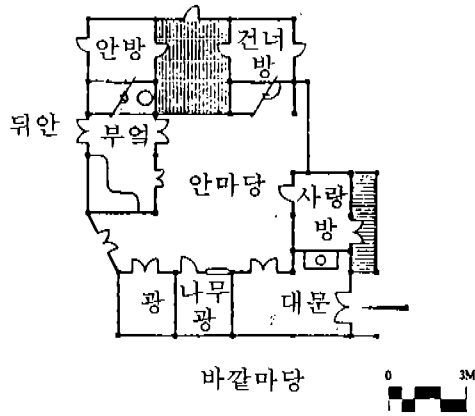
— 마당은 햇바다으로 활을만큼 깨끗한데, 여기는 놀이의 공간, 대화의 장소로서, 사람들이 모이는 廣場.

— 명석위에서 태를 잘랐고, 보름달같은 갓씨와 혼인하고, 마당같은 아들을 낳았고, 마당명석으로 몸을 감고 뒷산 양지바른 고향으로 돌아갔던 人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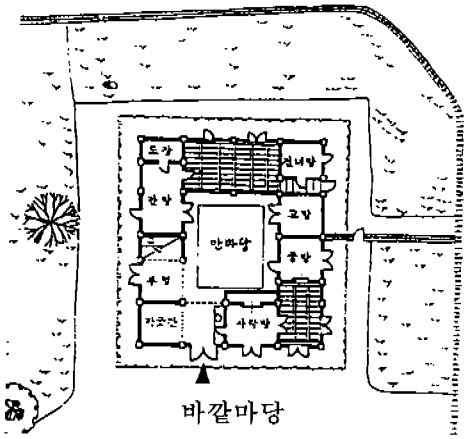
— 마당은 마루와 더불어 聖性の 中心으로서 韓國人의 정신적 뿌리를 형성시켜온 象徵體이다. 집은 바로 小宇宙의 世界이며 마당은 그 中核的인 場所이다.

— 마당은 韓國人의 人生이 그대로 압축되어 있는 장소이며, 民衆의 喜悲哀樂이 구석구석까지 스며들고 있는 人生의 살아있는 舞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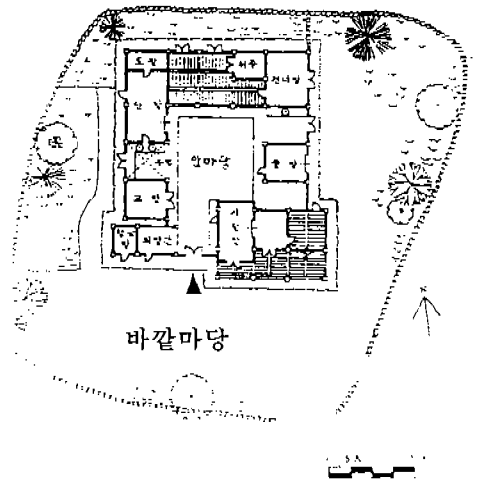
- 그러므로 안마당은 人生이 처음 주거형태를 취할때 부터 계획하였던 場所의 原象이며, 그것이 오늘까지 그 脈을 이어온 모습이다.
- 마당은 외부공간이긴 하나 안채와 맞물린 한쪽의 공간이며, 原初的 공간이다. 그러므로 결코 俗될수 없는 超越的인 공간이다.
- 마당은 우리 가족제도에서 오는 垂直的·小年的 愛情이 끝없이 어울러지는 장소이며, 한국인의 오랜 生活史가 그대로 함축되어 있는 공간이다.



〈그림 1〉 경기도 강화군



〈그림 2〉 경북 영양군 석보면



〈그림 3〉 경북 봉화군 몰야면